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기'

탄소융합 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참여기업 매출 25% 상승 고용 16% 증가 성과

전주시가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의 성장을 돕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이 참여기업의 매출 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정동철, 이하 기술원)은 전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탄소분야 창업 후 3년에서 7년 사이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태철)가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과 마케팅지원, 투자유치지원, 수출지원, 멘토링지원 등을 집중 지원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비즈니스모델(B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창업보육센터는 지난해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수 창업기업 5개를 엄선해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이 25% 상승하고, 고용이 1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술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10배 이상 늘어난 22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참여기업 40여곳으로 늘려 중점지원하고 있다.

창업지원 특화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 보완 △마케팅지원 △수출지원 △투자유치 지원 △멘토링 지원 등이다.

특히, 참여기업 중 ㈜이엔이(대표 고성호)는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탄소복합재 외함' 사업화를 통해 사업기간 내 15억3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4억원의 투자유치, 7명의 고

용창출, R&D연계 2억5000만원, 관련 특허 1건 등록 등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기업은 외부전문이 필요 없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활용한 독립전원 전기방식 시스템'을 출시해 사업화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보완 할 수 있는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탄소복합재 외함' 과제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사업화함으로써 단일성과 화학적 내성, 절연 저항성, 전자기 차폐력, 경량성, 내구성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간 동안 4억원의 투자를 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기술원이 운영하는 국내·외 마케팅 상담회 참여를 통해 바이어도 발굴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매출향상이 가능했으며, 해외수출 전문상사와 연계

가 가능해져 탄소복합소재 기업으로 도약 하게 됐다.

고성호 ㈜이엔이 대표는 "탄소복합 소재를 활용한 탄소복합재 외함'의 R&D분야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앞으로도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열차 단과 부식방지, 가스대응력, 경량화, 전자기 차폐력, 절연 저항력, 내구성 등의 장점을 보유한 탄소복합재 외함의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으로 글로벌 탄소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마케팅, 수출,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매출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 창업기업 생존하고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남부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건조농산물·수산물 등 280여 개 품목 입점 판매

부안군 관내 농업인이 참여하는 남부안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이 지난 22일 오전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국회 김종희 의원, 조병서 도의원, 최우식 남부안농협장을 비롯한 조합원, 사업참여 농업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 로컬푸드 1층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2층은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사업인 레스토랑과 체험 장 등을 갖추고 운영된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생산자 교육과 생산 체계를 준비하고, 보안·진서·홀포 3개면 105개 마을 180여 개 농가와 출하약정을 마치고 참여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채소, 과일, 특용작물, 발효식품, 잡곡류, 건조농산물, 수산물 등 280여 개 품목을 입점 판매하고 있다.

로컬푸드(local food)는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고 생산, 포장, 진열, 가격결정 등 모든 과정에 농가가 직접 참여

하며 농산물 포장지에 출하 날짜, 생산 장소, 생산자 이름까지 기재 돼 있어 믿을 수 있다.

최우식 남부안농협조합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촌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 농과 소농, 귀농인에게 새로운 소득작목을 제시하고 새로운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농민소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종규 군수도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복(福)을 짓는 마음으로,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복(福)을 건네는 마음으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농촌 수산인들 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정명 600년 정신인 임결불보 2023년 부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안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순임)에서 부안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누미 근근 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IT업계 지각변동 가시화... 애플은 도시바·구글은 HTC

구글, HTC의 휴대폰 사업부 일부 인수... 관련업계 파장

글로벌 IT 공룡들이 잇따라 기업 인수에 나서면서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수 대상이 같은 사업군은 아니지만 사업은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나섰고, 구글은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인 HTC의 휴대폰 사업부 일부를 인수하면서 관련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은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나섰고, 구글은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인 HTC의 휴대폰 사업부 일부를 인수하면서 관련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애플은 지난 2분기 기준 4100만대를 팔아치우며 삼성전자(점유율 22.1%)에 이어 2위(11.4%)를 기록했다.

판매량 면에서는 삼성에 뒤처지지만 영업이익률에서는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은 올해 2분기(애플 회계연도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 23.71%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다.

특히 낸드는 전원이 끊어져도 저장된 내용이 보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장기 기억장치로 사용된다. 도시바는 2분기 기준 16.1%의 시장점유율로 낸드 업계 2위 업체다.

애플이 직접 도시바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낸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번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애플 측이 원하는 물량을 맞출 수 있는 메모리 업체는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6여곳에 불과하다.

스펙 경쟁을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데 스마트폰 부문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2분기에 낸드 시장에서 38.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삼성전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낸드 수요 폭등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신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비싼 값을 주고 낸드를 사들이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 자사의 스마트폰이 우선순위가기 때문에 애플에 공급되는

낸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플은 공급사에 휘둘릴 경우를 대비해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자체 개발하기로 한데 이어 반도체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수직계열화를 꾀하고 있다.

플랫폼 공룡인 구글은 11억 달러(약 1조2463억원)를 들여 HTC의 픽셀 제조 개발 사업부문을 사들였다.

구글은 지금까지 자사의 스마트폰인 픽셀을 생산해 HTC에 맡기고 있었다.

구글은 이번 인수로 HTC에 근무하고 있는 스마트폰 인력 4000명 중 2000명을 자사 소속으로 데려오게 됐다.

HTC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 라이선스 권한도 획득했다.

독점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HTC가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도 제공할 수 있지만 구글은 향후 특허권 소송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의미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인공지능(AD) 비서 등 새로운 전쟁이 열리고

있다.

AI 비서의 경우 음성만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 일정을 관리하고 음식점을 예약하거나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다.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의 기술 고도화와 반도체 기술 발달이 맞물려 AI 플랫폼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사람 말의 맥락을 이해하고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등이 새로운 패러다임 등의 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나 사물인터넷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모든 라이프스타일이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미래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결국 직접 만든 생태계에 타 기업들을 종속시키거나 혹은 종속되느냐의 싸움인 셈이다. 구글은 애플처럼 하드웨어 사업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자라는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업의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뉴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온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